

생명공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AIDS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6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간 AIDS환자는 전년에

가시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예방홍보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에이즈홍보 중요성 부각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외없이 AIDS홍보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질의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의원들이 「에이즈 예방은 홍보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에이즈 관련 민간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홍보비용 대폭증액 요구

의사출신인 정의화의의원(신한국당)은 에이즈환자 1인당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1억8천9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건복지부의 「성병 및 에이즈 관리」예산중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비는 3억4천3백30만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홍보비용의 대폭적인 증액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에이즈 감염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에이즈 관련 단체와 에이즈 감염자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에이즈 예방협회등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 및 에이즈 감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의원은 에이즈가 이미 토착화된 질병인 만큼 에이즈균에 대한 검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 나타난 AIDS현황 및 대책

황보 승 남 / 의계신문 편집국장

비해 20% 증가된 1백4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추정감염자는 2천8백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9월말 현재 HIV총 감염자수가 5백96명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는 추정 감염자수가 2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감염자 및 환자의 증가는 개인적으로 생명과 건강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문제를 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전국민이 에이즈 검사의뢰를 신분 노출등에 대한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익명의 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제의무검사 비효율성 지적

강제 의무검사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집중추궁한 김명섭의원(신한국당)은 서울시의 경우 87년부터 94년까지 실시한 위생업소 종사자등에 대한 강제 검사중 감염자 발견비율이 4만9천9백15명당 1명꼴인데 반해 95년도 본인 희망에 따라 검진받을 경우에는 1천4백85명당 1명이 발견되었음을 예로 들고 강제의무검사 예산으로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AIDS 검사대책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의원은 6월말 현재 외국인 감염발견자수는 60명에 달해 내국인 보균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음을 지적하고 인권침해등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면서 국내 고용사업주를 통해 내국인 신체검사시 외국인 검진 유도를 협조요청하거나 무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홍신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AIDS감염자수를 무려 4천여명으로 추정하여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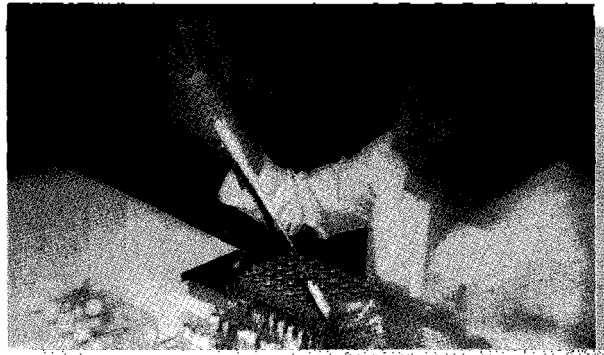
김의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한 이같은 수치는 복지부가 9월말 현재 집계한 5백96명의 7배나 되고 학계의 추정치 보다는 2배에 가까운 것.

김의원은 의료보협공단의 통계를 인용, 전국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가족 4백80만명중 지난 95년 한 해 동안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백94명으로 이를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5백만명에 대입해 추정한다면 에이즈감염자는 2천여명에 이르며 감염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50%로 보면 실제 감염자는 4천명에 이른다는 주장.

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전파경로는 정확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홍보임을 밝히고 유흥업종사자, 동성연애자, 학생, 군인, 해외여행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하여 정부와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홍보임을 밝히고 유흥업종사자, 동성연애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겠다.’



국제적 공동협업체 구성 주장

한편 이번 국감에서 김찬우의원(신한국당)은 환태평양지역 각국간의 전염병 방지 및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협업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양순의원(신한국당)은 전염병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보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에이즈예방백신이나 치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돼

모든 전염병이 그러하듯이 한번 대유행을 하고 나면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에이즈에 대한 국민홍보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고감도진단,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에 필요한 생의학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A)